

신기능 저하 또는 무증상 요이상을 보인 간이식 환자의 신장 조직 병리학적 소견분석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

고훈영 · 이종율 · 황현석 · 윤혜은 · 형복진 · 전연주 · 이소영
최범순 · 김용수 · 방병기 · 양철우 · 방병기 · 양철우

신기능 저하 또는 무증상 요이상을 보인 간이식 환자의 신장 조직 병리학적 소견분석

Ko Hoon-Young, Lee Jong-Yul, Hwang Hyun-Suk, Yoon Hye-Eun, Hyung Bok-Jin, Jeon Youn-Joo,
Lee So-Young, Choi Bum-Soon, Kim Yong-Soo, Bang Byung-Kee and Yang Chul-Woo

Division of nephrology, College of Medicine,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, Seoul, Korea

목적 : 이식 후 장기 생존자들에서 신기능 이상은 주된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. 본 연구에서는 신기능 저하 또는 무증상 요이상을 보인 간이식 환자의 신장 조직병리학적 소견을 분석하였다.

방법 : 1993년에서 2008년 3월까지 강남성모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신기능 저하, 현미경적 혈뇨 또는 단백뇨를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.

결과 : 환자군의 성별은 5명 모두 남성, 나이는 평균 53.2세, 간 이식과 신장 조직검사 사이 기간은 평균 25개월이었다. 간 질환의 원인은 간경변이 2명, 간경변과 간암이 동반된 경우가 3명이었다. 신기능 저하가 있던 경우가 1명, 현미경적 혈뇨가 1명, 단백뇨가 3명이었다. 신장 조직검사 결과는 IgA 콩팥병증이 4예, 당뇨병 콩팥병증이 1예였다.

결론 : 간 이식후 발생하는 신기능 저하 또는 무증상 요이상에 있어 신장 조직검사는 중요하다.

Key Words : 간이식, 신장 조직

Liver transplantation, Kidney biopsy